

익산시, '맑은물 공급' 상수도 정비 박차

환경부 지방상수도 국고보조사업 선정 국비 324억원 확보 2020년부터 5년간 사업비 622억 투입 노후상수관 등 교체

익산시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환경부 지방상수도 국고보조사업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오는 2020년

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622억원 중 324억원의 국비와 55억원의 도비를 지원받는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수돗물의 적수 발생과 이물질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블록시스템 31개소와 상습 적수 발생 지역·반복 누수지역의 노후상수관 148km

를 교체한다. 시는 특히 누수탐사, 구역고립 확인 등을 위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주요 상수관망에 정밀여과장치 및 자동수질측정장치와 유량수압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상수관로 433km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영광경찰, 지역사회 공동체 협력치안 활성화 보고회

영광경찰은 지난 7일 경찰서 4층 대청마루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한 치안보고회 및 반부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재운 경찰서장과 김학실 영광 노인회 회장을 비롯해 김범무 문화원장, 오영록 경우회장, 최성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연배 전남지방경찰청 인권위원과 경찰관 등 60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영광경찰 주요 추진 업무보고와 지역사회 공동체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한 주민 건의 사항 및 의견 수렴, 경찰비리 근절을 위한 반부패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서민을 불안·불행·불신하게 만드는 '3불(不)사기' 근절을 위한 추진활동, 수사권 조정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시책을 보고하고 경찰비리 근절을 위한 반부패 토론회가 함께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 정재운 영광경찰서장은 "영광 치안이 안전한 것은 여러 협력단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업무의 낡은 관행들을 개선하고 주민을 공대하는 치안활동으로 공동체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중훈 기자 jylee@

정읍시청 북카페 '도란도란 쉼터' 호응

민원인·직원 위한 8평 공간...300여권 도서 비치

정읍시가 사치를 찾는 민원인과 직원을 위한 북카페 '도란도란 쉼터'를 조성해 운영한다. 시는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독서를 즐기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민원상담과 업무연찬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쉼터를 마련했다. 기존의 원스톱 민원창구 공간을 활용해 재탄생한 쉼터는 약 8평 규모이다. 꽃과 화초를 심은 발코네라(balconera) 박스로 울타리를 만들어 자

연 숲을 느낄 수 있다. 또 직원의 자율적 기부로 소장도서 300여권을 비치해 쉼터를 찾는 이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오현중 정읍시 종합민원과정장은 "모두를 위해 조성한 도란도란 쉼터가 대화를 통한 소통창구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를 발굴해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이 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 전통명가」 인증서 교부식



군산시, 30년 이상 영업 '전통명가' 11곳 인증서 교부

군산시가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영업을 이어온 '전통명가' 업체를 선정해 10일 인증서 교부식을 가졌다. 군산 전통명가는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장수 업체를 발굴해 추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과 9월 두달간 17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1차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1개 업체를 선정했다. 군산 전통명가는 ▲국일식당(아구탕, 복탕) ▲대영장식식품총판(벽지, 장판) ▲멧돌방식당(평양냉면) ▲몽실정(꽃게

장) ▲삼해건어물직판장(건어물) ▲서울누비(이불, 침구류) ▲이삭의상실(맞춤양장) ▲일도당인쇄(도장, 인쇄) ▲장미칼국수(칼국수) ▲전주우족설렁탕(우족탕, 해장국) ▲정원사(남성의류) 등이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6곳과 음식점 5개소다. 시는 이들 업소에 '군산 전통명가' 인증현판과 함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1대1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환경 시설개선(업체당 7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창군, 국회 문화위 후원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수상

고창군이 지난 11일 서울 KR컨벤션웨딩에서 개최된 '제4회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독서·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단체, 군부대, 개인을 발굴·육성해 독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독서문화진흥회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후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원했다. 고창군은 지난 5월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제3회 고창한국지역도서전을 열고, 상설

인문학강좌(매주 월·화요일) 운영, 도서관 낭송교실(매주 금요일) 운영, 길 위의 인문학,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 책과 문화를 즐기는 생활문화 조성으로 '책 읽는 대한민국'에 기여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에서 독서율이 가장 높은 도시를 목표로, 도서관과 생활공간 곳곳이 책과 독서를 통한 지역사회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전문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광양서 최첨단 '드론산업대전' 16일 개막

제조사·수요기관 등 100여곳 참여 화재진압 등 시연도

“최첨단 드론이 한자리에, 드론 구경오세요.” 광양시는 16일부터 이틀간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2019 스마트 드론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양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드론산업대전은 16일 오전 10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시회, 시연회, 비즈니스상담회, 컨퍼런스 등의 산업분야와 드론 레이싱·축구 경진대회, 드론 낚시, 드론 풍선터트리기 체험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드론 제조·서비스 공급기업 40여 곳과 포스코,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60여 수요기관·기업이 참여하고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실증시연 중심으로 기획됐다. 전시회는 산업시설물 안전점검 특화

드론 및 농업용 드론, 수상구조 드론, 헬리콥터, 유인드론 등 산업분야에 활용되는 드론을 볼 수 있으며 레이저 스캐너, 열화상 카메라 등 드론 탑재 임무장비와 소프트웨어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실증시연회에서는 드론 화재진압과 연막소독, 인명구조 시연에 이어 광화·열화상 카메라 활용 원거리 시설물 안전진단, 5G 기반의 통합관제 플랫폼 등 드론 신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수요기관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점검 기술에 대해 드론기업이 수요처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드론산업대전에서 드론시장의 문을 열어 드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을 필두로 산업분야에서도 드론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매매 - 7억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문의. 010-6834-7400

